

1. 한글로 작성할 경우, 문단을 양쪽 정렬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서론-본론-결론'으로 재구성할 것,
3. 참고한 문헌들이 제법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문에 인용한 부분에 대한 출처(각주)를 밝히고 있지 않음. 각주를 꼼꼼하게 정리할 것.
4. 교재의 5장을 참고하여 글의 전체적인 구성을 재조정할 것.
5. 제목 수정???
6. 본론의 핵심 내용의 연결이 부자연스러운 부분이 있음.

제목: ???

이름: ???

1.서론

우리는 흔히 일에는 귀천이 없다고 말한다. 그러나 주변을 둘러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 몸을 쓰고 힘든일은 기피하고 무시하며 편한 일을 찾고자 한다. 이에 대해서 '공정하다는 착각'의 저자 마이클 샌델은 일에 존엄성이 떨어졌기 때문에 발생한 현상이라고 말한다. 그렇지만 우리는 일이 존엄하다는 것을 들어본적이 없다. 들었다고 해도 아마 스쳐지나가는 이야기였을 것이다. 나 또한 그러하였으니까. 그러면 이 글을 통해 정말 일은 존엄하고 앞서 이야기 했듯 정말 직업에 귀천이 없는 지를 알아보려고 한다.

2. 본론

2-1. 일은 수단으로서의 가치를 지닐뿐.

우리는 어릴적 되고자 하는 직업이나 일을 장래희망이라고 한다. 이러한 장래희망들을 하고자하는 이유는 여러가지이지만 직업 자체가 이유인 편은 대체적으로 적은 편이다. 흔히 본 어릴적 가족이 아프다거나 본인이 아파서 의사가 되고자 한다든지의 여러 이유로 사람은 직업을 갖기를 원한다. 다만 이러한 이유들은 일

이 목적이 아니라 앞선 이유들을 이루어내기 위한 수단으로서 사용 된다. 즉, 일은 목적으로서의 가치가 아니라 수단으로서의 가치를 지닌다는 이야기이다. 목적으로서의 가치는 절대적인 가치를 지니지만, 수단으로서의 가치는 언제든지 바뀌는 상대적인 가치인 것이다.

2-2. 인간이 존엄한 이유

흔히들 사람은 존엄하다고 한다. 그렇다면 사람은 어째서 존엄한가? 그것의 대표적인 설명으로 칸트는 '이성적인 존재로서의 인간은 목적 자체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인간을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서 취급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다. 수단은 대체할 수 있는 것으로 상대적인 가치밖에 갖지 못하지만 인격에 갖춰진 인간성은 목적 자체로서 '비교할 수 없는 무조건적인 가치'를 갖는다.' 고 한다. 즉 사람이 존엄한 이유는 사람이 목적으로서의 가치를 지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상대적인 가치를 지닌 일은 존엄하지 않고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 인간은 존엄하다.

2-3. 일에 존엄성이 있는 이유.

위에서는 일에서는 일은 존엄하지 않고 인간이 존엄하다고 하였다. 그러나 일에는 존엄성이 있다. 일이 존엄하지 않은데 어째서 일에 존엄성이 있는가? 그 이유는 일이 인간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일은 수단으로서의 가치와 목적으로서의 가치뿐만이 아니라 자아실현의 가치를 지니기 때문이다. 자아란 원칙적으로는 의식의 작용들의 동일한 수행자이다. 라틴어에서 '나'라는 1인칭대명사이다. 그러니 자아는 인간이자 인간의 일부분이다. 이러한 자아의 실현을 하게해주는 것이 일이다. 즉, 일에 존엄성이 있는 이유는 일이 인간의 일부분이기 때문이다.

2-4. 일에 종류에 따라 존엄성이 달라지지 않는다.

대부분의 이들은 공무원을 꿈꾼다. 정년이 길고 몸을 쓰지 않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어째서 몸을 쓰는 일을 차별하는가? 흑인은 피부가 검기 때문에 존엄하지 않은가? 장애인들은 신체가 온전하지 않아서, 정신이 온전하지 않아서 존엄하지 않은가? 그렇지 않다. 우리는 모두 인간은 존엄하기 때문에 인간을 차별해서는 안된다고 배운다. 그렇기에 인간의 일부분인 일도 모두 존엄성이 있고 존엄성이 라는 것은 강도가 있지 않다. 그러나 내가 모든 일에 존엄성이 있다고 주장은 하지만 반사회적인 일이나 범법적인 일을 옹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한 일들은 인

간의 존엄성을 해칠 뿐만이 아니라 사회적인 통념상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3. 우리는 일에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정확히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한다라고는 말하기 힘들다. 단지 일의 존엄성을 해치지 않게 해야할 뿐이라고 말 할 수있을 뿐이다. 사람이 다른 이들을 어떻게 대하는지에 대해서 누군가가 통제할 수 없다. 사람을 대하는 일에도 그러한데 어떻게 일에 왈가왈부 할 수 있겠는가? 다만 우리가 사람을 차별하면 안된다고 배웠듯이 일에도 그러하자고 말 하겠다.